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추수감사절 · 교회설립26주년 메시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말씀 속에는 어떻게든지 받은 은혜에 보답해 보겠다는 염원과 아무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 우리에게 새생명과 몸 되신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해야 좋을지 모를 은총이다.

너무 크신 은총이기 때문이다.

베다니 집에서 주님을 위한 사은잔치가 벌어졌을 때 마리아는 나드 한 근을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다. 낭비라고 나무래는 사람도 있었지만 과연 낭비였을까? 혈값에 팔아도 삼백 데나리온은 족히 받을 이 귀한 향유를 구하기 힘들고 많은 돈이 소모되었던가는 누구보다도 마리아 자신이 더 잘 알 일이다. 그러나 그와 그 가정이 받은 주님의 대속(代贖)의 은혜에 비하면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옥함을 깨뜨려 몽땅 부어드리고도 오히려 부끄럽다는 생각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심정이다. 이 크신 은혜를 베푸신 나의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너무 많은 은총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감사하고 나면 저것이 남았고, 저것을 찬송하고 나면 또 이것이 빠졌다. 종일 감사해도 다 못한 감사요, 만입으로 찬송해도 다 못할 은총이다. 내게 있는 것 중에 주께 받지 아니한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은혜 아닌 것이 없으니,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이 많은 은혜를 주신 나의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를 감사하기 위해 저를 드리고, 저를 감사하기 위해 이를 드린다 하지만, 그러나 드리는 그것까지도 역시 주께 받은 것이고 보니, 그리 대단한 보답이 될 것 같지도 않다. 정말 이 크고 많은 은총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끝이 없는 은총이다.

적은 정성이라도 드리고 나면 그 대신 열배, 백배의 은혜를 더 주신다. 드릴수록 입혀 주시는 은혜가 커가기만 하니, 대체 무엇으로 이 끝없는 은혜를 보답한단 말인가. 여간 한 정성을 드렸다해서 보답이 다 된 줄로 알아서 안되며, 아무래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처음부터 그 보답을 단념해서도 또한 안된다.

보답을 힘써보라. 보답할 수 없는 은총임을 알아야 하고, 보답을 할 수는 없어도 보답을 해보려고 정성을 쏟아야 한다. 주신 은혜를 높이 쳐들고 주신 이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일상생활에 그분의 뜻에 맞는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래도 갚을 수 없는 막중한 은혜여!

〈주여, 은혜의 막중함을 깨닫는 것이 곧 보답의 길인가 하옵니다.〉

원로목사 이 중 윤



오늘은 추수감사절, 교회 설립 26주년 기념주일

주일예배 시 : 성찬식 거행 / 찬양예배 시 : 추수감사절 감사찬양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며 교회 설립 26주년 기념주일이다. 주일 I, II, III 부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며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기도한다. 또한 추수감사헌금을 봉헌한다.

찬양예배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대장 : 최형열 장로)의 특별 찬양이 있다.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는 추수감사절과 교회 설립주일이 되도록 기도하자.

제 10회 천사들의 음악회

11월 26일(주일) 오전 11시 30분, 사랑부실

제 10회 사랑부(지도 주원순 전도사, 부장 이강인 집사) '천사들의 음악회'가 오는 주일(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 사랑부실(102호)에서 열린다. 올해로 열 번째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그동안 함께 믿음 생활을 해오던 사랑부 친구 중 나오지 않는 친구들과 새 친구들을 초청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프로그래밍으로는 합창, 중창, 워십, 연극, 난타, 피아노 독주, 벨 플레이트 등이 있으며 특별순서로 사랑부 학생들에게 난타를 지도하는 장윤식 집사가 기타 독주를 한다.

사랑부 '천사들의 음악회'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바란다.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스데반회 장애순 홍승전/황정임 정춘혜 무명2명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서울교회장로회)

2018 신임 서리 집사 면접 및 교육

12월 3일(주) 오후 2시 602호

2018 신임서리집사 면접 및 교육이 12월 3일(주) 오후 2시, 602호에서 열린다. 해당 성도들은 필히 참석 바란다.



연말연시 사역

- 11월 26일(주) : 1, 2, 3부 - 교회설립26주년 감사 - 추수감사주일(성찬식) 찬양예배 - 감사찬양(할렐루야)
- 12월 3일(주) : 오후 2시 - 602호 2018 신임 서리집사 면접, 교육
- 12월 10일(주) : 1, 2, 3부 예배시 - 2018 섬김위원 임명 오후 3시 - 권사회 총회(본당) 오후 4시 - 선교회·전도회 총회(본당)
- 12월 16일(토) : 오후 3시 - 스테반회 총회(101호)
- 12월 17일(주) : 오후 3시 30분 - 교구총회(본당)
- 12월 24일(주) : 오후 3시 30분 - 교사총회(본당)
- 12월 25일(월) : 오전 5시 - 성탄절 새벽예배 오전 11시 - 성탄축하 예배
- 12월 31일(주) : 오후 3시 30분 - 특별제작회 찬양예배 - 은퇴식(집사, 권사) 23:30~01:30 : 송구영신예배
- 1월 7일(주) : 1, 2, 3부 - 신년감사예배(성찬) 찬양예배 후 - 공동의회(예·결산)

예수의 비유

잃어버린 자 II

(눅 15:1~32)

원로목사 이종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진리는 회복이다. 탕자의 비유가 많은 비유 가운데서 유난히 사랑을 받는 것은 단순히 재미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회복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집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발견하고 만나주신 분이요, 그런데 탕자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것은 회개와 회심이다.

탕자의 비유를 해석하는 신학자들 가운데 잘못된 해석을 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린 것은 확실하지만 아버지가 탕자를 찾아 나선 이야기는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서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 간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고만 계시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해석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성경의 진리와는 배치된다.

탕자의 비유의 초점은 죄인을 찾고 계신 하나님이다. 잃어버린 동전과 양을 찾는 주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

는 죄인의 회개와 회심이 강조되고 있다. 회개와 회심은 상호보충적이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32절).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아버지뿐이다. 이 비유를 읽다 보면 죄인이 죄를 짓고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단계가 있고 또 회복하는 단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

세상을 향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두 번째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자율적인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탕자는 호호하고 심장의 고동소리를 자신이 내는 줄 안다. 집나간 아들이 이와 같은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다면 탕자의 비유는 비극으로 끝이 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비유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을 제시한다.

회복하는 길에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첫째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주러 죽는구나'(17절). 죄가 가져오는 비극 중의 하나는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다. 오늘도 자기의 현실 존재를 오해하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 불행한 인생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둘째로 지은 죄에 대한 정직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 집 나간 아들은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회개

하며 아버지에게 종으로 쓰달라고 아버지 앞에 나갔다. 그 아들은 아담과 이브처럼 자기의 죄를 남에게 전가하지 않았다. 그는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다고 고백했다.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시 51:4) 라고 자기의 죄를 정직히 고백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다윗이 눈물로 회개한 것처럼 죄를 범한 인생들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셋째로 회개한 바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탕자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본문에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와 온 동네 사람이 기뻐하는데 유독 형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신실한 아들이며 방탕한 것이 없는 자라고 자긍했지만 실제로는 소견이 좁은 자였고 게다가 탐심이 있었다. 혹 동생이 돌아옴으로 인하여 자기의 소득이 감소할까 걱정했다. 누구든 기쁜 일을 당할 때 함께 기뻐하고 고난 속에 빠져 있을 때 함께 눈을 흘리며 염려해 주는 것이 신령한 형제의 관계이다.

아버지는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으며'라고 말한다. 여기서 '네 동생'이라는 말이 중요하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동생이 아니라, '바로 네 동생'이라고 하며 동생과 형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서 아들의 관계를 회복한 것처럼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완전한 자권(子權)이 회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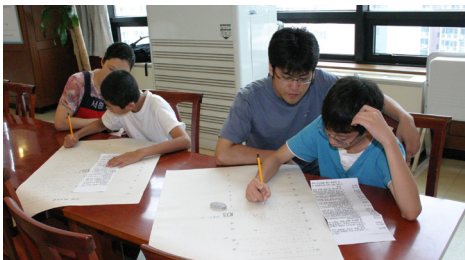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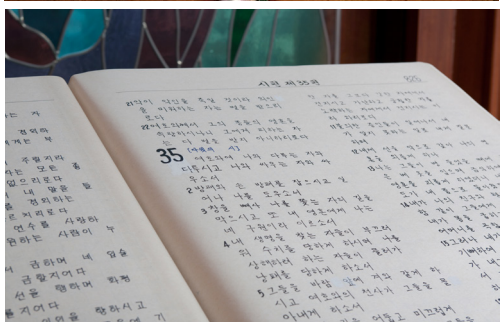


지난 26년을 돌아보며

'말씀'과 '기도'의 두 수레바퀴



1979년 중국 심양과 하얼빈 방문 당시 이종윤 원로목사님이 보신 한글 필사성경



2005년 11월 27일 암송필사성경 봉헌식

우리교회에는 두 권의 특별한 성경이 있다. 한 권은 서울교회 정문 앞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새겨진 '둘 성경'이다. 이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서울교회의 두 수레바퀴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권은 2층 본당 좌측 계단에 있는 '서울 암송 필사 성경'이다. 대치동 예배당을 헌당 한 2005년에 교회 설립 14주년이자 헌당식이 열리는 11월 27일이 될 때까지 연중 14개의 헌당감사와 경축행사를 하기로 하면서 암송 필사성경 제작 및 봉헌은 그 가운데 하나로 기획했다.

1979년 중국 심양과 하얼빈 방문 당시 이종윤 원로목사님은 한 성도가 라디오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앞에 있는 낡고 불품없는 노트 한 권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 노트는 한국에서 방송으로 천천히 읽어주는 성경을 연필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필사를 한 것이었다. 이종윤목사

님은 이 때 큰 감동을 받고 성경 필사를 기획하게 됐다.

첫날 필사는 흥해작전 기도회를 마치고 8층 식당에서 이종윤 원로목사를 비롯한 명예, 은퇴장로, 당회원 전원과 교역자, 무지개 회원 등이 흰 가운을 입고 함께 찬송을 부른 뒤 필사를 시작했다. 이날 필사자들은 신구약 66권 각 권의 첫 쪽들을 맡았다.

이렇게 시작된 필사작업은 8월 15일까지 71일간 계속됐다. 성도들은 미리 배정받은 날짜에 교회로 나와 요절을 암송하고, 가운을 입고 성경원고와 용지를 배부 받은 뒤, 오타자 발생을 막기 위해 연필로 1차를 쓰고 펜으로 본 필사를 하는 방식으로 필사작업을 진행했다. 신구약 1,189장 31,173절(쪽수는 1,754쪽)을 적는데 참여한 성도들의 수는 모두 1,852명, 연인원 2,050명이었다.

유년부와 초등부 학생들의 '고사리 손 필사'에서

부터 백발 권사님들의 필사까지 온 성도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미국과 영국,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 유학중인 젊은이들도 현지로 보낸 필사 용지에 맡은 쪽을 적어 보내왔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사는 미국 LA지역에서는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다락방 모임을 갖고 고국에서 부쳐준 필사용지를 나눠 쓰며 필사에 동참했다.

서울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서울 암송 필사 성경'을 돌아보는 것은 그 당시 우리의 뜨거운 교회 사랑과 말씀 사랑을 기억하고자 함이다.

'말씀'과 '기도'의 두 수레바퀴가 어긋나면서 발생한 서울교회의 현 사태를 직시하고 다시 기도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교회 회복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자.

(편집부)

추수감사절 · 교회설립 26주년

감사! 감사! 감사!



노문환 장로 (당회 서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교회설립 26주년과 2017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원하실까요? 우리의 헌신을 원하시고 우리의 복음을 위한 더 많은 사역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원하실까요. 물론 이런 일들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하여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되지만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감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

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였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들에게서도 듣기를 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비록 우리교회의 형편이 어렵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으며, 온전히 회복된 교회의 모습을 언제 볼 수 있을까 하는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부 제 10회 천사들의 음악회

예수를 찬양하는 작은 천사들



이강인 집사 (사랑부 부장)

오늘 교회의 26번째 생일을 맞이하며 축하의 의미로 사랑부에서 '천사들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서울교회와 함께 개설된 사랑부도 교회와 함께 여인 26년을 달려왔습니다. 장애자들에 대한 비전이 남다르셨던 이종윤목사님은 중현교회 부임 시에도 가장

은 친구들의 얼굴이 새삼 떠오릅니다. 초창기 사랑부는 주로 재활원에서 왔기 때문에 중증 지체자들이 많아서 학생들을 주로 휠체어로 이동하였고, 화장실에 가기도 전에 옷에 실례하는 일이 빈번하여 교사들이 손에 오물을 묻혀 가며 씻기고 일일이 밥을 먹여주면서 아이들과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던 그때가 새삼 그립습니다.

사랑부 친구들이 두 달여 동안 합창, 중창, 워십, 연극, 기타연주, 벨 플레이트, 난타 등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간 아이들을 지도하시

느라 수고하신 여러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 빠져 나가면 또 물을 붓고, 또 물을 붓고 하여 이루어진 아이들의 연주 실력이 그 어떤 오케스트라나 합창단 못지않

먼저 장애자를 위한 밀알학교를 설립하였고, 서울교회 설립시에도 교회학교 조직과 함께 사랑부를 개설토록 하였습니다. 그때는 예배당 의자도 없이 시멘트 바닥에서 시작하며 교회 조직도 아직 미비한 때 사랑부를 설립하라고 하는 이목사님이 의중이 조금의 아했지만, 장애자들을



돌보며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고독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온 몸으로 알게 되었고 비로소 이목사님의 생각도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목사님의 장애자에 대한 비전은 호산나대학으로 이어져 아가페타운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6년을 돌아보니 사랑부를 거쳐간 많

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미미하겠지만 온 맘을 다해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이 우리 사랑부 교사들은 어깨가 으쓱할 만큼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 1층 사랑부실에서 열리는 '천사들의 음악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설립 26주년 감사 축시

새벽

신동기 권사(12교구, 시인)

새벽
차기운 하늘
수직으로 내려와
첩첩 어둠
뒤척이는 혼돈을
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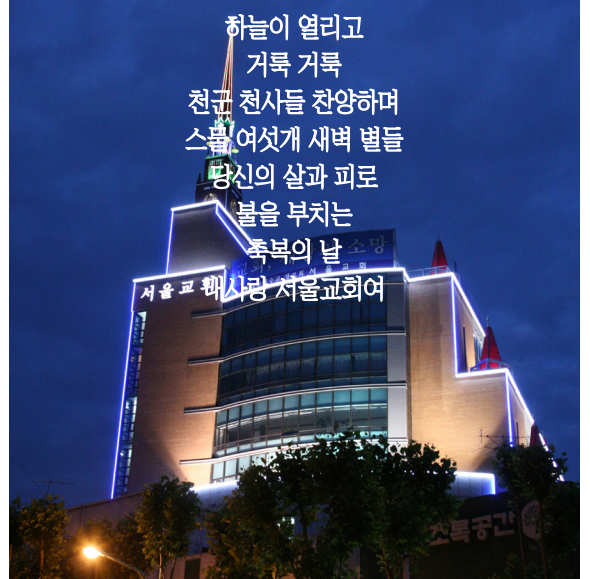
그 피로
붉어진 혈관
지구 구석구석 까지
지켜내고 키워낸
불굴의 순교자
스물여섯
창년 서울교회여

진리의 사선을 넘어
정의와 공의로
상하고 찢겨진 몸
고스란히 쏟아
제단 위에 올려 놓고

타오르는 향
금그릇에 담아
하늘 보좌에 올라 가는
푸르른 목숨
황홀하여라

옥색 하늘 펼쳐놓고
갈피 갈피 묻어 두었던
붉은 눈물 꺼내어
너와 나
부둥켜 안고
하나 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하늘

하늘이 열리고
거룩 거룩
천군 천사들 찬양하며
스물여섯개 새벽 별들
당신의 살과 피로
불을 부치는
축복의 날





2017년 추수감사절 · 교회설립26주년 특별찬양

열렸다! 하늘문이!

Open New Thy Gates of Heaven

작사:이중윤 목사 작곡:박정선 장로



최형열 장로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

누군가 훗날에
'열렸다! 하늘문이'
찬양에 대하여 묻거든

감사 없이
어찌 이 찬양을 부르리요
눈물 없이
어찌 이 찬양을 들으리요
하나님 없이
어찌 이 찬양의 뜻을 알리요
창조 없이
어찌 이 찬양을 흥내 내리요
기도 없이
어찌 이 찬양을 간구하리요
고난 없이
어찌 이 찬양을 볼 수 있으리요
고독 없이
어찌 이 찬양을 기뻐하리요
채찍질 없이

어찌 이 찬양을 말하리요
소명 없이
어찌 이 찬양을 외치리요
생명 없이
어찌 이 찬양을 노래하리요
광야 없이
어찌 이 찬양을 푸르게 하리요
은혜의 강 없이
어찌 이 찬양을 넘치게 하리요

독수리처럼 훨훨 날아 올라가세
감사와 눈물로 노래부르세
하나님 계신 장막에 가득히 채워보세
믿음과 희생으로 드러 영광돌리세

하늘문이 열렸다! 열렸다! 하늘문이
민족과 세계를 향한 복된 소리 들리네
주의 장막 사모하세
주의 성전에서 영원히 사세 아멘



지난 주 우리교회는



① ② ③ ④ ⑤
2017 사명자대회
⑥ 사명자 대회 강사 김성봉
목사
⑦ ⑧ ⑨
대입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사진 : 안성광 집사
이준태 집사

유·초등부 선생님 음악회

어린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① 사회를 보신 한동민, 정아영 선생님 ②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는 유년부·초등부 ③ 플루트를 연주하신 김민아 선생님 ④ 판소리로 찬양하신 최근영 전도사님 ⑤ 플루트를 연주하신 임규연 선생님 ⑥ 멋진 테너 색소폰을 연주하신 장윤기 선생님 ⑦ 첼로를 연주하신 한동현 선생님 ⑧ 연합으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연주하시는 선생님들

사명자 대회 기간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발표하는 음악회는 많지만 선생님들이 유초등부 어린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이 민감하게 받았을 어려움을 달래주고 학생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기획하였답니다.

외부 도움 없이 오직 선생님들이 마련한 음악회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교회에 오는 기쁨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는 할렐루야 찬양대(대장: 최형열 장로)의 추수감사절, 교회설립 26주년 특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칸타타 “열렸다! 하늘문이(작사:이종윤목사, 작곡:박정선 장로)” 전곡을 류충기 집사의 지휘로 연주하며, 오르가니스트 차주연 집사, 피아니스트 김양연 집사, 팀파니스트 윤주일 집사가 함께 하며 솔로이스트는 소프라노 신모란, 윤진희, 알토 김효서, 테너 김위찬, 베이스 박인하, 최 욱 대원이 맡는다.

등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2월2일(토) '사랑의 쌀' 운동 조찬 기도회와 몽골 국제 울란바타르대 이사회에서 각각 설교한다.

■ 김용진 선교사(말라위) CTS 방송 출연 안내 - CTS 내 가매일기쁘게 본방 12/5(화) 오전 9시20분, 재방 12/5(화) 오후 6시, 삼방 12/8(금) 새벽 1시40분

■ 연주회 : 8교구 장윤식 집사 『장윤식 클래식기타 리사이틀』 11월 29일 (수) 오후 7시30분 TCC아트홀 (영등포구 청역 3번출구)

■ 금주의 식사 : 강명모 성도 최미경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 떡제공 : 제 2권사회 '나눔의 집'

군복무자 입대 예정자 기도회

매월 첫째 주일
오후 3:30/802호



비전2020운동본부(본부장 : 최광성 장로)는 현재 군에서 복무하며 국도방위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서울교회 젊은이들을 위해 매월 첫째 주일 월례 기도회 및 매주 도교팀이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다.

자녀가 군복무중이거나 군복무 예정인 모든 성도는 자녀들의 정보를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거나 김광래 집사(010-3340-3224)로 문자주시기 바란다.

교회 주차장 사용 안내

수요예배, 찬양예배 후 신속한 출차

수요예배와 주일 예배 시 지하주차장을 개방하여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 위원들의 지시를 따라서 질서 있게 주차하고 있다.

다만 수요예배와 주일 찬양예배가 끝난 후 주차장 정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먼저 지상으로 옮겨주기 바란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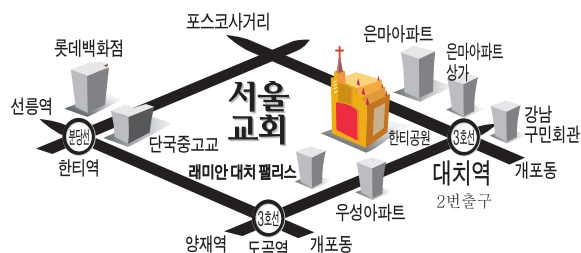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교회설립 제26주년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서울교회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옵소서.
2. 지금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우리나라가 법과 질서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포항지역 지진 피해가 속히 복구되게 하시며, 전쟁의 소문이 사라지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